시신 백 구의 입관 때마다 느끼는 것

(빌3:1~6)

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시신 백 구의 입관 때마다 느끼는 것>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시신을 아마 백 구 이상 입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절차로서 입관을 할 때마다 입관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은 입관예배를 인도할 때에 표현하는 말들과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알고 있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생면부지의 시신을 마주대해서 입관식을 이끌어야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장례절차를 인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입관식 때마다 시신을 대하면서 느끼는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혹시 그런 걸 기대하실지 몰라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그런 느낌이 있었나보다!'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입관기도를 하게 되면 성경을 한 손으로 들어 가슴에 갖다 대고 한 손으로 시신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 시신의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차갑고 그렇게 딱딱할 수가 있습니까?
이마가 원래 딱딱하지만 그래도 만지면 살이 좀 있잖아요, 근데 속에 살아있는 생기가 없으니까 얇은 껍데기가 돼서 머리뼈에 딱 붙어버려서 얼마나 차갑고 딱딱한지 몰라요.
무슨 쇳덩어리 표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시신에 대해서는 그 시신이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이었든 아니든 조심스럽게 다루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입관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어떤 인격자의 육체였기 때문에 그 시신을 조심스럽게 다루게도 되지만 또 반대로, '아, 정말 인간의 육체라는 건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은 그 고깃덩어리에 머물러서 같이 죽은 게 아니고 분리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분리하고 나면, 아 이건 진짜 그 인격이 입던 옷에 불과하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느껴지는 것은 장례 때에 문상객들이 오고 화환들이 있잖습니까? 정말 굉장한 집들이 많습니다.
정말 굉장한 집안의 장례를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자식들도 다 오지 않고 며느리 혼자 지킬 때도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민망해서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지 나사로입니다.
문상객도 많고 화환을 다 들여놓을 수 없어서 복도에 쭉 늘어놨어요, 수십 개가 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묻습니다, '이분은 거지 나사로를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자기의 삶에 위로로 삼았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위로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을까?'
나사로의 뜻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에요.
거지 나사로니까, 아무도 나사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위로가 되는 소유도 없었습니다, 건강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공교롭게도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네가 받을 것을 이 세상에서 다 받았다, 그러므로 넌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점이 기억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사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 때, 이 시신을 입고 있었던 그 인격,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로로 삼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 어마어마할수록 하나님을 위로로 삼는 정도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다를 게 없는 것이라서 긍정적으로 장례 설교를 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음 한 쪽에 그러한 의심이 들어옵니다, 언제나.

그리고 정말 아무도 없는 장례식에 가면, '이 사람이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나 믿었다면,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상황에서 거의 위로의 독점의 위치에서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셨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일 때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바라보며 느끼는 마지막은, 예를 들어 제가 잘 아는 구역장님이나 구역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속사정을 다 알아요.
딸이 시집갔다가 사위가 그 권사님의 아파트를 저당 잡혀서 사업을 하다 망해먹고, 권사님이 나갈 곳이 없는데 자기네들을 전세금 빼서 시댁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권사님이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권사님.
그러면 제가 '아, 권사님이 집 걱정, 자식 때문에 속 썩던 것 다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근데 과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살 때는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이제 이 고깃덩어리 남겨두고 떠난 이 상태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로의 대상으로 삼고 살았는가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이런 일련의 느낌들이 늘 반복돼서 이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고 얼마나 주님을 위로로 삼고 하나님아버지를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살았는가 하는 시간들을 계산해야 될 때 어느 정도의 열매가 계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육체를 신뢰함'이라는 구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을 주석서에 보면, 단순히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제한해버립니다.
이건 오해인 것 같아요.
율법주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육체를 신뢰한다는 독특한 언어의 조합, 육체와 신뢰, 우리가 육

체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신뢰한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독특한 언어의 조합을 사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포함해서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본질적인 가르침과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에서 교회 안의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처럼 그렇게 쉽게 율법주의로 환원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경에 대한 매너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요.
'육체를 신뢰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만 말하자면 나도 결코 지지 않는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아래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을 분석해보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몇 가지 요소가 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먼저는 선천적인 조건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고 할 때 육체의 어떤 요소를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육체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조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인 조건이에요.
그 다음 후천적인 조건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행위입니다, 행위.
육체를 갖고 행위를 하잖아요, 또 육체가 있으니까 후천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지위가 주어지지요, 육체가 있으니까 선천적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신뢰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첫 번째 조건, 육체 때문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1절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과 빗대어보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와 육체를 신뢰한다가 지금 대치되어 있어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기쁠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즉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 안에서만이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고 신

뢰하는 것이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기쁨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얘기해보자면, 먼저 선천적인 육체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출신, 집안, 부모님의 형편.
부모님이 잘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치지 말라는 얘깁니다.
또, 선천적인 조건 중에서 외모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 정말 내 얼굴이 잘생겼어요, 예뻐요, 그러면 그 선천적으로 예쁘게 태어난 외모 때문에 내가 기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쁘기 때문에 더 불행할 수도 있고 더 험난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못생겼어요.
이 못생긴 얼굴로 여자로 태어나 이 세상 살아가려면 참 힘들겠구나!
이것도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니까 얼굴이 못생기면 험난한 인생이 되겠다고 믿는 겁니다.
김 태희 씨보고 부러워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팔등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키가 150, 160밖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할 거다, 이건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키가 160밖에 안 되는 단신인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그 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주 안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선천적인 육체에 따른 조건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부모님이 알코올중독자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절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마약장이라도 내 기쁨과 행복과 만족에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좌우된다고 믿는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게 돼버립니다.

두 번째, 사도바울이 후천적으로 육체적인 조건으로 말한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신분과 지위에요.
후천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분과 지위의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렇게 후천적인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조건들, 이거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바울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내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회적인 지위, 조건, 내 삶의 형편,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데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에 따른 조건 중에 선천적인 조건과 후천적인 조건이 있고 그 다음이 과거의 행위입니다.
과거의 행위란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한 그 과거가 앞으로 나의 현재와 미래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죄악을 저질렀고, 박해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죄를 저지른 과거가 나의 행복과 기쁨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과거에 잘못된 결과로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근심하고 눌려 사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또 거꾸로, 과거에 내가 화려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후광 아래서 아직도 자긍심을 갖고 살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 되게 살았든 잘되게 살았든 지금과 앞으로의 내 기쁨과 행복은 내 육체로 살았던 과거의 삶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묻혀있거나, 아니면 자랑스러운 과거를 기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율법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기쁜 일이 생길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만족하고 행복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행위에 의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어떻게 살라는 얘긴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와 연관된 타고난 선천적인 조건도 신뢰하지 말고 후천적인 조건도 신뢰하지 말고, 또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의해서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면, 난 무얼 하라는 얘기냐?

결국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그걸 채워서 만족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데,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니 채워야 되는데, 육체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무엇을 통해서 하라는 말인가?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기 이전에 끝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 안에서.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해 계십니다.
그 승천해 계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쁨을 끝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육체로 선천적인 조건 후천적인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려고 애쓰면서 지금의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러려고 하지 말고, 아예 육체를 통해 시작되는 삶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에 마음이 따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에 발을 안 들여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주님께로 올라가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말하나 하면 '개'라고 그럽니다.
2절에 '개들과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를 말합니다.
괜히 몸을 상한다는 거예요.
그 할례가 보충돼야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을 개라고 말합니다.
이방사람들을 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전에는 선천적인 육체의 조건을 통해서 이방과 선민이 갈라졌는데, 이제는 육체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느냐 못 얻느냐로 선민과 이방인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로 인해서 주어진 선천적인 조건이 어떻든 후천적인 조건이 어떻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것은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여간 몸을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마음의 발을 들여놓기 이전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쁨 행복 만족을 끝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 반복해서 말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으로 나가서 육체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을 거라고, 육체를 신뢰하면서 육체에 근거해서 너희의 삶을 쌓아가고, 너희의 마음과 힘과 뜻을 거기에 투자했다가는 개들이 되고 행악자가 되고 몸을 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도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 신뢰하지 맙시다.
신뢰할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마음이 육체를 통해 세상의 삶의 현장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손끝 하나 대기 이전에, 십자가를 통해 하늘에 계신 주님 안으로 마음이 들어감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끝을 내고 삶의 현장으로 부름 받아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